■ 르포 / 삼중고 겪는 도내 한우사육농가 가보니…

“줄도산 우려… 올해 최대 고비될 것”

도내 662농가·3만7750마리… 3년 새 3000여마리 늘어
전국 사육두수 정점… 경영비 급등하는데 소값은 폭락

제주지역 한우사육농가가 최근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부담과 산지가격 하락 등 잇단 악재 속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의 한우사육두수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20~30마리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한우농가의 사육 규모는 662농가·3만7750마리다. 최근 3년 새 3000여마리가 늘었다.

전국 수송아지 가격은 2021년 마리당 455만원에서 올해 3월 305만원으로 21%가량 하락했다. 제주도 역시 동기대비 418만원에서 295만원으로 22% 급락했다. 반면 사료가격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20% 넘게 상승하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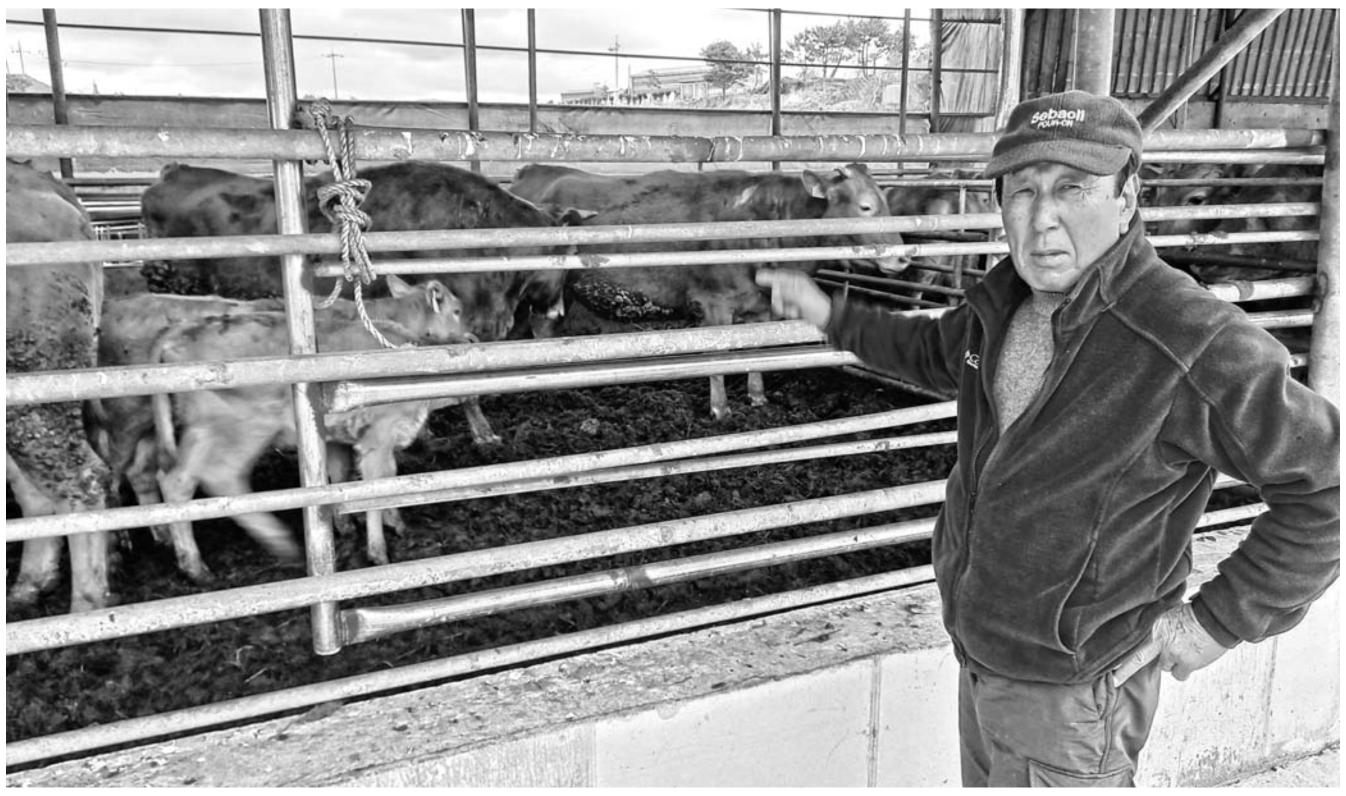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삼다도목장의 양세환 대표는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에서 지난 15일 임신한 암소 2마리와 수송아지(9월~10월령) 4마리를 구입했는데 가격이 마리당 300만원으로 비슷했다”며 “이러한 산지가격이라면 소규모 한우농가는 자금 회전을 할 수 없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1990년대초, 제주에 한우를 들여왔던 선도농가로서 이전 비육우 사육 등 45년간 축산업에 종사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시기도 많지 않았다”며 현장의 암울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수소는 비육우로 가격이 싸도 거래가 이뤄지지만 암소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을 꺼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목장에서 만난 서귀포시축협 관계자도 “번식우농가의 자금 회전을 위해 가축시장에서 매월 몇 마리씩 구입하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농가의 경영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폐업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한우농가가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가는 사료값을 내려주고 행정에서도 실질적인 조사료 생산비 지원, (해상)물류비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입량 축소와 대대적인 세일 행사를 비롯해 학교·군대 식자재 납품 등의 고급육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지역 상인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 제주한우를 집중 매입한다면 한우농가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전국의 한우 사육마리수가 358만마리로 정점이 예상됨에 따라 한우농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며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암소 자율감축 사업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 확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안덕면 소재 삼다도목장 양세환 대표가 최근 서귀포시축협 가축시장에서 구매한 암소를 가리키며 사료값 부담과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중1 ‘드림노트북’ 교사들 뿔난 이유

전교조 “납품한 후 관리 등 나몰라라… 교사 부담 커져”
교육청 “4개 지역센터에서 노트북 유지관리 일체 담당”

제주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 핵심 공약과 연계해 모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일명 ‘드림노트북’)을 지원하면서 교사 업무부담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난 17일 논평에서 “지난해 11월 정책협의회, 올 2월 교육감 상견례에서 학교에 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했음에도 도교육청이 노트북을 학교에 납품만 한 채 교부와 관리는 상당수 학교에서 전적으로 선생님이 처리하고 있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학교 내 노트북 상시 사용과 관련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활동에 실제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교사들이 노트북 지원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용 콜센터로 연락하면 4개 권역별 지역센터에서 노트북 유지 관리 일체를 담당하는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업은 물론 자기주도학습,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을 담은 노트북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 중으로 3월 말쯤 중학생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도교육청이 도내 45개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게 배부를 완료한 노트북은 총 6867대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대안교육협의회 성명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중학교 1학년들에게도 노트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지난 1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측은 “선관위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노트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할 경우 등록 대안교육기관 4곳에 총 12대의 기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주시 가정집서 모녀 숨진 채 발견

제주시 한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쯤 제주시 도련동 한 가정집에서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집 안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유서 등이 발견된 점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국민권익위 마라도 길고양이 민원 ⬆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민원’으로도 나타났다. ‘마라도 고양이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요구가 쏟아지면서 지난달 제주지역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한 달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수와 키워드 등을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 민원 발생률을 보면 전국에서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제주도’였다. 2월에 접수된 제주지역 민원은 8048건으로 1월과 비교해 8.9% 늘었다.

민원이 급증한 데는 ‘마라도 고양이 반출’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가 뽑은 제주 주요 민원 키워드에는 ‘고양이 보호 방안’, ‘마라도 고양이’, ‘동물보호법 위반’, ‘뿔쇠오리 개체 수’ 등 서로 연관된 단어가 집중됐다.

마라도 길고양이 반출을 결정한 문화재청을 향한 민원도 급증했다. 문화재청 민원은 1월 161건에서 2월 405건으로 늘어 151.6%의 증가율을 보였다. 김지은기자

서귀포항서 50대 남 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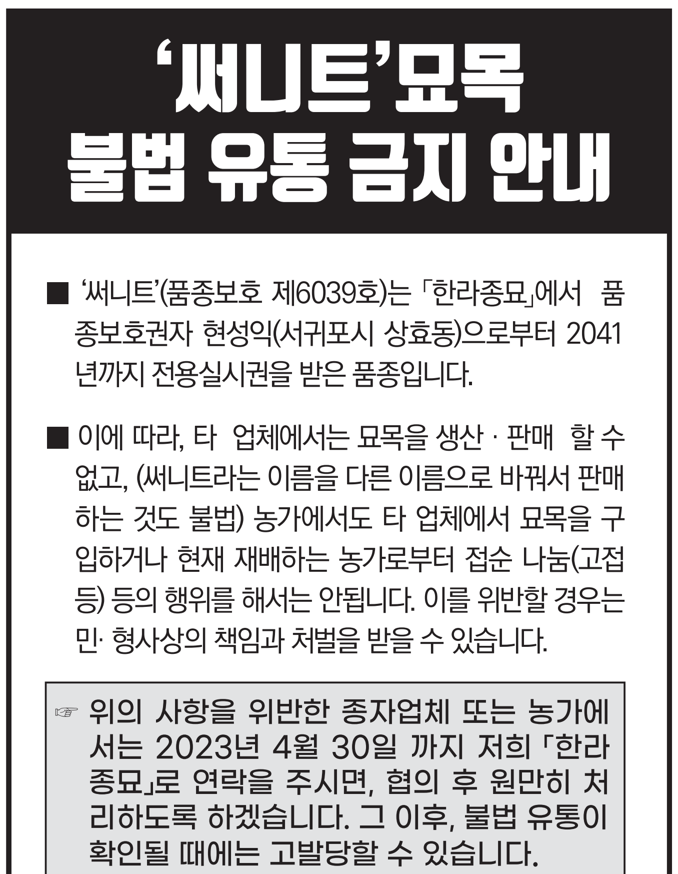
서귀포항에서 물에 빠진 50대 남성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지난 17일 서귀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3분쯤 “서귀포항에 사람이 물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김도영기자

서귀포 주방용품점 화재

주방용품점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00만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 사진

지난 17일 서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1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주방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인근 주민이 연기와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원 31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오전 9시9분쯤 모든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층 소매점과 2층 단독주택 등이 반소되고 중고 주방용품 등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24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도영기자